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5월 12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담당자	• 인천e음운영팀장 변영환 ☎440-4211 • 담당자 허정규 ☎440-421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e음 충전금·캐시백 거래내역 회계검증 완료

- 인천e음 운영대행 회계정산 검토용역 결과 공개 -
- 회계법인 통해 인천e음 충전금캐시백 등 거래내역 회계검증 완료 -

인천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대행 회계정산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인천e음은 2018년 7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기반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시민들은 충전방식으로 선입금(충전)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따라서 민간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주)의 자금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왔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주1회 이상 주기적인 계좌 확인 등을 관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인천e음의 주간 거래액은 1천억 원 대로 검증의 한계가 있어, 시는 전국 최초로 회계기관을 통해 인천e음 운영의 적정성을 살펴보게 됐다.

이번 용역에서는 △인천e음 연도별(2018~2021) 거래금액 △ 인천e음 캐시백 지원기준 준수여부 △인천e음 이용자의 충전금 및 캐시백 적정관리 여부 △가맹점 정산 및 거래취소 등의 대한 회계처리 △거래 방식별 거래내역 관리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해 회계법인이 검증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e음의 총 결제액은 8조 6,542억 원 이었으며, 그에 따른 총 결제수수료 매출은 약 819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e음 운영에 따른 충전·금융수수료 비용은 약 371억 원, 카드제조·발급비용은 약 120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플랫폼 운용비용과 시스템 개발·투자비용이 발생했으나 대행사 내부정보에 해당해 포함되지는 않았다.

시는 이번 회계정산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e음 운영에 따라 발생한 선수금(고객 충전금) 이자를 시에 귀속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성·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정산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용역 결과는 인천시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open/OPEN030601>, 게시번호 187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인천e음 카드 이미지

